

리얼리티 쇼의 기운과 힘

여리되어 힘차게 條歌합창

가 대학야구사에 훨찬 한 韻
두드린지 37개 霜。모교 야
성동 원우에서 막을 내린 춘계
파권을 차지, 수차례로 썬어 오
말끔히 씻었고, 모교 야구팀이
것은 주제 대학연맹전에서 준우
작년 韓大化(당시 4년)은 세
에서 국적인 결승 훌륭을 날려
쳤다. 또 이전 強者에 강하고 弱
이라 불명예를 씻겨했다. 지해
리코끼리(白象) 東國大는 부단한
다른 來日의 勝敗戰蹟을 알리기 위
에서 맙을 쏟고 있다. 오늘의 勝
부는 11시경을 제시하겠다.



리그전에서 우승을 차지, 우승기를
받아쥔 선수는 金奉根(김奉根) 선수)



◇대학야구 제패를 自祝하는 프랭카드가 석조관정면에
나붙었다.

金君은 이번 대회에서 25 타수 10 암타 9 타점으로 4 환의 높은 타율을 보였고 타점상을 받았다.
5번 지명타자 李建烈(警行2)도 26 타수 10 암타 8 타점을 기록하는 맨타를 과시.
다른 대학팀에 비해 도교팀이 뛰어난 점은 투수 탑선이 뛰어난 만큼이다. 살피워 타선이 고르다는點. 거의 매경기 때마다 암호를 대내 공격의砲門을 연 1번타자 姜政男(최인수 體敎4)을 비롯하여 7번타자 黃鎮先(經營3)· 9번타자 金宰鏞(종전수)

A black and white portrait of Wang Kang, a man with dark hair, wearing a suit and tie, looking slightly to his left.

교. 같았으로
부임해왔다.
국가 대표 투수들이 출신인 솔감
들은 자신의 학력하지 못한 선수
생활과 교고교구부 잘록 생활 10여년 동안 한번도 패권을
할 수 주수들에게 못한 한을 위해
아시았다면 그 지난 1년동안 스파르타식 길을 물을
될게». 그 결과 훌륭보통은 그걸을 갈리고, 서둘러 돌아온 것을 고맙다.
비 해 투수 려이 모교팀은 그걸을 갈리고, 서둘러 돌아온 것을 고맙다.
기장 힘든 그걸을 갈리고, 서둘러 돌아온 것을 고맙다.
뭐 헤다 그걸을 갈리고, 서둘러 돌아온 것을 고맙다.
준 선수들이 고맙다.
풀난 밖에도 투구나
인 연습을 하는 선수
보면 점점 힘이 촉진
있고, 서둘러 돌아온 것을 고맙다.
만 5천여 응원단의 일정은
나령정 멎지도 못할
그저 고마울 뿐이며
자리를 계속 지키는 일정이다.



감독 金寅植

준 선수들이 끝난 밤에도 투구나 배팅을 개인 연습을 하는 선수들을 보면 절로 빼았습니다. 그러나 리고, 서둘러 운동장을 떠나는 1만5천여 유희원의 위로의 박수는 내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정상의 자리를 계속 지키는 것임이 남았을 뿐이며 일정문제나 몸다.



4 金曼治著

불명예 씻어 진작에 크게 한몫 선 建大 초토화

◇各신문기자회도
시내 주요 日刊新聞들
도 도쿄의 야구이승호를
게 취급했다. 中央日報(4
월8일자)는 스포츠면(9
면)에 6단 기사로 紙
面의半을 할애했으며,
東亞日報(4월8일자)는
8면 룹기사로, 日刊스포
츠(4월9일자)는 3면
다음기사(8단)로
다루었
다음은 각신분이 불인
도교 야구부의 賽戰績을
알리는 제목들。
[코미디언 뜻한번大]

